

직장 고수의 법칙 〓 처세만 잘해도 직장생활의 절반은 '성공'

회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곳이다. 그래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업무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말하자면 처세만 잘해도 직장생활의 절반은 성공이란 뜻이다.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실력만으로 직장에서 성공하긴 힘들다. 상사에게 인정받고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선 처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심리학자이자 일본 도쿄릿쇼대학 객원교수인 나이토 요시히토는 그의 저서 <직장의 고수>에서 직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무조건 지켰던 5가지 법칙- 단 1분도 상대를 기다리게 하지 말라: 스피드의 법칙, 티끌만한 차이가 성공을 가른다: 섬세함의 법칙, '그릇이 큰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배려의 법칙, 화는 숨기고 웃음은 드러내라: 인내의 법칙, 상사에겐 인정받고 후배에겐 존경받는다: 처세의 법칙-을 통해 '직장생활의 고수'가 되는 길을 안내했다.

이 가운데 배려의 법칙에 대해 더 자세히 전한다.

1. 융통성 없는 일방통행 규칙은 잠시 잊어라!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펜실베이니아철도 직원이었을 때, 서부지역을 관할하는 상사 토마스 스콧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벌어진 적이 있다. 사고처리 관련 명령은 관할구역은 책임자만 내릴 수 있는 것이 규칙이었다. 하지만 카네기는 스콧의 이름을 제멋대로 사용해 지시를 내리고 모든 선로의 운행 스케줄을 정상화시켰다.

책임자를 무시하고 근무규정을 어겼으니 카네기는 징계를 받을 수도 있었으나, 단 한마디의 지적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스콧의 신뢰를 얻어 훗날 스콧의 임무였던 서부지역 관할 책임자 자리를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물려받았다.

규칙은 지켜야 하고 중요시해야 한다. 하지만 '규칙은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조금 더 여유있고 융통성 있게 대처하는 편이 낫다.

2. '싸우지 않는 사람'이 사내정치에서 승리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젊은 시절 누구하고나 논쟁을 벌이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논쟁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멀어진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그 후로는 누구와도 싸움을 하지 않았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누구와도 싸우지 않도록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출세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덤벼드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출세하기 어렵다.

3. 아부는 상사가 아닌 '아랫사람'에게 하라!

직장에서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사에게 아부하는 것만 생각한다. 물론 승진에 대한 결정권은 상사가 가지고 있으니 상사에게 아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상사에게만 잘하고 후배나 부하직원에게는 냉정하게 대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4. 경쟁보다는 '협력'을 추구하라!

노벨상을 만든 노벨은 학창시절, 아무리 애를 써도 공부로는 이길 수 없는 아이가 있었다. 시험을 보면 노벨은 항상 2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1등을 하던 아이가 병에 걸려 장기간 입원을 하게 되었다. 모두 이번엔야말로 노벨이 1등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1등을 하던 아이가 퇴원해서 시험을 보고 다시 1등을 했다.

그 아이가 1등을 할 수 있었던 비밀은 노벨과 그 소년 둘만이 알고 있었다. 사실은 입원한 친구를 위해 노벨이 매일 자신이 필기한 노트를 들고 병원으로 가서 수업내



용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경쟁보다는 서로 협력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일하는 게 훨씬 즐겁다. 게다가 그것이 출세를 앞당기는 길이기도 하다.

5. 자신의 이익은 늘 '다음'으로 제쳐 두어라!

컬럼비아대학의 대니얼 에임스는 진심으로 자신의 일을 도와주는 사람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갖지만, 이득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혐오감을 느낀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니 흑심을 품고 상대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친절을 베풀면 나중에 2배, 3배가 되어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한 선의는 백발백중 남에게 들킨다.

호감형 인간은 이해타산이나 흑심을 품고 남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저 친절하게 대하고 싶어서 그렇게 할 뿐이며, 거기엔 순수한 진심만 있을 뿐이다.

6. 남에게 불쾌감을 주는 '무의식적인 행동'을 고쳐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심한다. 하지만 '아주 살짝 짜증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둔감할 때가 많다. 가끔 그러는 정도라면 신경은 쓰이지 않지만 참고 넘긴다 해도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있으면 점점 짜증이 나기 마련이다. 이런 작은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면 커다란 정신적 데미지가 된다. 이런 종류의 스트레스를 미국의 카운슬러들은 '마이크로 트라우마' (micro trauma)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찻잔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도 몇 번 정도라면 그다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계속되면 주변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



럭키타이어

연말연시 감사 대 세일

HANKOOK KINERGY ST H737 P195/65R 15 \$65.00 Each



브레이크 체크 업 Free 얼라이먼트 체크 업 Free



Hankook
driving emotion

NEW TIRES
OIL CHANGE
BRAKES

(714)530-2301

13128 Magnolia St. #A
Garden Grove, CA 92844

